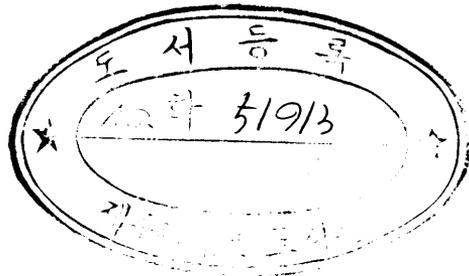


11
338.6
36492

碩士學位論文

中年期 女性의 老後設計에 관한 研究

- 濟州道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洪 淑 子

1999年 2月

中年期 女性の 老後設計에 관한 研究

- 濟州道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惠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提出者 洪 淑 子

洪淑子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12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국문초록 >

中年期 女性の 老後 設計에 關한 研究

— 濟州道를 中心으로 —

洪 淑 子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惠 淑

이 연구는 현재 노인 세대와는 다른 차원에서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노후 설계의 준비 방안을 살펴보고, 차세대 노인들의 보다 향상되고 바람직한 노후 대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8년 9월 28일에서 10월7일 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은 제주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자모 537명이었다. 조사 도구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wi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 구조, 각 조사 도구의 문항들을 빈도 분석 하였다. 노년기 준비 정도의 차이 검증은 종속 변수가 비율 척도인 경우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서열 척도인 경우는 교차분석(χ^2)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설계 경향 중 경제적 준비는 연령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월수입이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는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회 관계망은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은 집단일수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경제적 준비가 최우선이었고, 정서적인 면, 사회 관계망, 신체적인 준비 순으로 나타나, 타 연구인 육지부의 경우 신체적인 준비가 우선 순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이 논문은 1999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 노후 생계 대책은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저축·연금·퇴직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저축 정도를 보면 연령이 많고, 월수입이 많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일수록 저축액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후 부양 형태는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독립 생활을 지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제주여성의 자립적인 특성을 보였다.

셋째, 임종에 대한 준비에서 임종 장소는 집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자 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 장례 방식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분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도도 높다.

다섯째,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요구도는 무료 건강 진단 제도가 가장 높고, 의료보호, 노인 전문 병원, 무료 양로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노후 설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부터 노년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연결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중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의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 의료 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중년기 여성의 특징	4
2. 중년기 여성의 발달 과업	6
3. 제주도 여성의 생활상	8
4. 노후 설계	10
5. 노후 대책	14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7
1. 연구 대상	17
2. 조사 도구	17
3. 자료 수집	18
4. 자료 분석	1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9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9
2. 노후 설계 경향	20
3. 노후의 생계 대책	25
4. 노후를 위한 저축	27
5. 노후 부양 형태	28
6. 임종에 대한 준비	30
7.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32
8.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요구도	35
V. 결론 및 제언	38
참고문헌	42
Abstact	45
부 록	47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설계	21
<표 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생계 대책	26
<표 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저축	28
<표 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부양	29
<표 6> 임종에 대한 준비	31
<표 7>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여부	33
<표 8>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	33
<표 9> 노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 요구도	34
<표 10> 노인 복지 사업 요구도	36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3
<그림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설계	22

부 표 목 차

<부표 1> 노년기를 위한 노후 설계	48
<부표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임종 장소	49
<부표 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례 방식	49
<부표 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50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오늘날 생활 주기에서 성인기가 길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통한 영양 및 건강 관리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 양육 기간이 짧아지고 부모 역할로부터 탈피하는 시기도 빨라져 중·노년기의 연령층은 증가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이 2~3세기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통한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한국에서는 불과 1945년 해방 이후 반세기도 안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는 급속한 것이었고, 적응과 조화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사회의 변동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가족 생활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등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한 여성의 삶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 의식속에서 생활해 온 부모에게서 양육된 중년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교육, 취업, 사회 활동이 향상되었고, 가족법에 의한 사회 권리 등 제도화된 사회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심각한 의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식의 도리로서 당연시되어 온 부모 부양 의식은 점차로 희박해지고 있으며,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자녀에게 자신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중년기¹⁾ 여성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전통 사회 의식의 종적 관념을 가진 노부모를 책임져야 하고, 본인은 현대 사회에 적응하면서 차세대 노인으로서 가족 부양 이외의 노후 설계를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1)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로서, 연구자에 따라 35세~70세까지의 한 시기를 각각 중년기로 보고 있다. 특히 Jaques(1965), Havighurst(1972), Vincent(1972), Sheehy(1976), Gould(1978), Thompson(1980), O'Connor(1985), 김종서 외 3인(1982) 등은 35세부터 중년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5세 이상 60세 이전 사이를 중년기로 보고자 한다.

과거에 비해 사회 진출의 기회가 확대된 현재의 중년기 세대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중첩으로 인해 역할이 과중됨으로써 스스로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노후에 대한 가치관 및 사회적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써, 노후에도 개인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노후를 즐기면서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령 범위에서도 자녀가 아직 중등 교육기에 속해 있으며 우리 사회의 과열 교육 풍토에 의해 가족의 제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해 일차적인 의무를 띠고 있는 주부들로서는 오로지 자녀에게만 몰두하게 되어 중년기 여성이 노후 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할 여력은 부족하고, 다음 단계인 노년기의 준비를 늦추면 너무 늦어 저서 서두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여유 있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의 전체를 돌아보고,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가정적 차원에서 계획적인 노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노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이 시기를 적절히 이용한 노후 준비는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년기에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없고,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후 설계 경향과 대책 현황을 분석하여 개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²⁾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후에 관한 준비는 장기적인 계획이므로 미리부터 대비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독립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된다. 특히 중년기 여성은 모성 역할의 감소와 조모로서의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노후 준비는 개인적 차원의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하지만, 사회 복지 체계의 다원화, 다양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와 같이 부양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노후 준비 태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신하연·여정성(1997), “중년기 소비자의 경제적 노후 대비 수준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22,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p.51~52.

그러므로 이 연구는 현재 중년기의 과도기적 상황과 노년기의 준비 단계로서의 중요성에 그 바탕을 두고,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노후 준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현재 제주도 중년기 여성의 노후 설계 경향 및 노후 대책 요구도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노후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중년기 여성의 특성과 발달 과업을 이해하고,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제주도 중년기 여성의 노후 설계 경향과 노후 대책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중년기 여성의 노후 설계 경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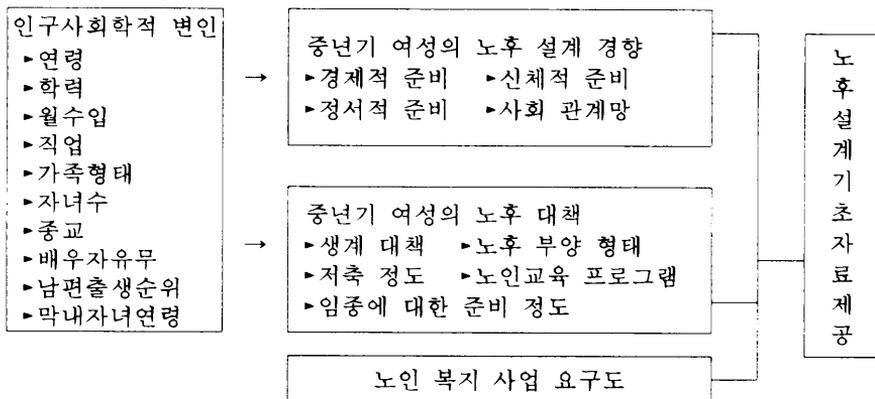
연구 문제 2. 중년기 여성의 노후 대책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중년기 여성의 임종에 대한 준비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중년기 여성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5. 중년기 여성의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35~60세 사이의 중년기 여성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 과정의 편의상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령 분포가 중년기 전반에 고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여성의 특징

인간 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적·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고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연령 구분은 항상 적절한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적 배경, 생활 역사, 전쟁, 재정적 공황기, 특히 생활의 사건 등이 중년기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로 시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중년기의 일정 시기를 인생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의 시기 혹은 변동의 시기로 보고 있다. Carl Jung은 35~40세 사이에 중년기의 심리적 상처가 가장 심하다고 보았고, Kenn Rogers는 중년기 위기가 30~39세 사이에³⁾ 나타난다고 보았다.

McCoy⁴⁾는 과거의 성인기 연령 구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9~55세 연령대를 29~34세(30대 접속기), 35~43세(중년 재미미기), 44~55세(재안정기)로 세분화하였다.

持田榮一⁵⁾ 등은 전체적인 정신 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중년기 부분에 해당되는 장년기 부분을 30~60세로 잡고 있다.

중년기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면 연령, 가족 주기, 개인의 심리적·생물학적 과정,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영향받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년기는 자녀 양육 역할이 어느 정도 감소된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라 볼 수 있다.

3) Jim Conway(1996), 한성열 역, 「흔들리는 중년기」, 학지사, p.27.

4) McCoy, V. R.(1977), "Adult Life Cycle Change : How Does Growth Affect Our Educational Needs?", Lifelong Learning : the Adult Years, 권영환(1989), "한국 주부 사회 교육 참여 저해 요인 분석", pp.20~21. 재인용.

5) 持田榮一, 森降夫, 諸 岡和房, 生涯教育事典, 東京: 行政社, 1979, p.167,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04 재인용.

중년기의 신체적인 변화는, 갱년기 현상으로 폐경을 포함하여 모든 기능 조직과 내장 기관이 쇠퇴하거나 활동력이 약해진다. 뼈의 구조가 딱딱해지며 피부와 근육의 탄력성도 줄어들어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색, 체형의 변화도 느낄 수 있으며 감각 기능의 둔화와 소화 불량, 변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⁶⁾

특히 여성의 폐경기는 중년으로의 삶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며, 폐경은 여러 가지 신체적 증세나 심리적 불안감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일부 여성 중에는 별다른 심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중년기에는 건강 상태를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하여 신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아에 대한 재평가⁷⁾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 불균형과 생리적·심리적 불안정 때문에 억압된 내적 갈등과 정서적 반응도 나타난다. 심리적인 변화에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맺어진 인간 관계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로서, 자신이 과거에 지내온 경험만을 고집하여 쉽게 타인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 나이에 이르면 부모의 사망, 배우자 사망, 만성적 질병 등을 포함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으로부터 자유감의 시기로서 막내 자녀가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를 지내는 때이다. ‘빈 둥지’ 직전의 조용한 ‘적막한 둥지’ 즉 나를 향할 수 있는 시기로써 위기를 느끼기도 한다.⁸⁾ 반면에 지도자적 시기이기도 하여 자아실현의 가치가 팽배해지며 빠르면 조부모가 됨으로써 가족 관계상의 의사 결정 능력이 증가되는 즉, 가정에서의 지도자적 입장으로 지위가 한 단계 향상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중년기는 인간의 생활 주기 상에서 개인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의 절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인생의 후반부로의 진행을 의미한다. 자신의 갱년기 증상, 신체적 감퇴, 역할 변화 등을 수용하며, 자녀의 성장 및 가족 생활의 안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노후의 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6)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교문사, p.62.

7) 상계서, p.57~58.

8) Jim Conway(1996), 전계서, p.166.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중년기 여성이 그들 자신의 노후 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년기 여성의 발달 과업

중년기는 샌드위치 세대, 양면으로 협공 받는 세대⁹⁾로서 Erikson¹⁰⁾은 중년기를 생산성의 시기라고 정의하고, 이 시기의 주된 관심은 부모 됨과 직업에서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흔적을 영속적으로 남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R. J. Havighurst¹¹⁾는 인생의 주기를 아동 초기(0~6세), 아동 중기(6~12, 13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 초기(대략 18~30세), 중년기(대략 30~60세), 성인 후기(대체로 60세 이후)의 6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대해 독특한 발달 과업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녀들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②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성취하는 것.
- ③ 개인의 직업적 경력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이를 유지하는 것.
- ④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
- 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생리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
- ⑥ 노화를 겪는 부모들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이다.

Levinson¹²⁾은 중년 과도기인 40~50세 사이의 발달 과업에 대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떠오르기 시작하므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9) 박경숙(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p.9.

10)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 Y. : North and Co. p.111, 김명자(1989), 전게서, p.43, 재인용.

11) Havighurst, R. L.(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Y. : David Mckay. p.120, 서 전(1991),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 행동 및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p.6, 재인용.

12)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and Mckee B.,(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 Y. : Knopf, 김명자(1989), 전게서, pp.22~30, 재인용.

안승록(1986), “중년기 위기와 개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p.33, 재인용.

생각하고 부모나 기타 친지와 의 유대에서 벗어나 자립·자존의 위치를 획득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 나라에서도 김종서 외 등¹³⁾이 한국인의 발달 과업을 7단계로 나누었는데, 중년기라고 볼 수 있는 성인 후기(35~60세) 단계의 발달 과업을 지적·정의적·사회적·신체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적 영역

- ① 일정한 경제적 생활 수준을 세우고 유지하기.
- ② 직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계속 추구하기.
- ③ 자녀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육하기.
- ④ 사회 변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갖기.
- ⑤ 사회 제도, 규범, 기관 등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 갖기.

■ 정서적 영역

- ① 배우자 및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 유지하기.
- ②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이고 융화하기.
- ③ 취미를 살려 여가를 유용하게 보내기.
- ④ 젊은 층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기.

■ 사회적 영역

- 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역할과 책임 다하기.
- ② 손아래 사람과 부하를 선도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기.
- ③ 사회의 윗사람으로서 알맞은 역할과 도리를 다하기.
- ④ 미풍 양속을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 ⑤ 연로한 부모를 편히 모시기.
- ⑥ 사회적 지위나 성취에 알맞은 처신을 하기.
- ⑦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신체적 영역

- ① 중년기의 생리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13) 김종서 외(1982), “평생 교육의 체제와 사회 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09, pp.125~126.

- ② 적당한 섭생과 충분한 휴식으로 신체적 기능을 보전하기.
- ③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 유지하기.
- ④ 질병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기.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년기는 신체적 감퇴, 갱년기 등의 변화와 직업에서의 은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가족 주기 관점에서 노부모와 자녀의 중간에서 늙고 의존적인 노부모, 함께 중년기에 처한 배우자, 독립적 개인으로서 자아 정체감을 수립해 나가는 자녀와의 관계를 조화있게 재조정해야 할 과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부부 관계는 기존의 역할과 권력 관계 등을 보다 융통성 있게 재조정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성에 근거한 우정과 동료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개인적 발달 관점에서는,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기존의 그릇된 관념과 편견으로부터 탈피하여 생애 구조를 재평가하고, 내적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으로써, 통합된 자아를 추구해야 한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중년기를 재적응을 요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데, 특히 여성은 모성 역할의 감소와 중년기의 신체적·심리적인 변화로 인해 역할 갈등을 느끼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3. 제주도 여성의 생활상

앞에서는 일반적인 중년기의 특징과, 중년기 여성의 특성을 살펴 보았는데 이 항에서는 연구 대상인 제주도 여성을 통해서 중년기의 문제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약 90km 떨어져 있고, 화산 활동에 의해 중앙부에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조성된 화산섬이다. 따라서 표토층이 얇고 비가 지하로 흡수되어 건천을 이루는 지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풍속이 빠르고, 풍량이 많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잡곡,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다.¹⁴⁾

14) 오성찬 외(1987), 「아름다운 제주 정신」, 제주도, p.8.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연의 조건을 극복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제주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노동을 해야 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요청되었던 것이 사실이다.¹⁵⁾ 그래서 집안 일과 바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며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

위와 같은 제주도의 환경이 제주 여성들을 강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여성은 근면성과 해양성 기질에 바탕을 둔 열린 생활 의식으로 생활했는데, 혈연·지연에 걸친 집단적 피해를 주었던 4·3의 후유증은 물자와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시켰고, 남편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했다. 또한 외래 침입과 중앙 관리들의 횡포로 외래인에 대한 피해 의식이 남아 있어서 배타적이면서 '우리'라는 공동체적 고향 의식이 있어 외부에 나갔어도 고향을 향한 안주 의식이 강한 일면들이 있다.

이런 어려운 역사적·환경적 조건은 의식주 생활에서 사치스럽지 않게 수수하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의지적 태도와, 오늘 충분히 못 먹고 못 입어도 유사시 대비해 항상 비축해두려는 경제 관념을 지닌 자립·자급·자족 정신으로서 미래 지향성을 지닌 생활을 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생활을 가족 구조에서 보면 부부간의 수평적, 평등적 구조¹⁶⁾를 이루어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로서의 의식에 앞서 개인 의식이 우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부모의 경우 연로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분거(分居)하며,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취사가 가능한 경우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제주도의 분가주의 전통은 소비활동 분리와 함께 생긴 풍습으로서 토지, 기후가 척박하여 대가족 보다는 분가를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효과적 방법이었던 것이다. 여자들도 잠수일이나, 밭일을 통한 경제권을 갖고 있어서 고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삶의 지혜를 엿 볼 수 있다.

15) 김혜숙(1998), "가족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 구조-여성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p.418.

16) 김혜숙(1998), 전게서, pp.416~418.

즉 제주도의 관습은 부자 두 세대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채의 집에서 (안·밖거리, 3세대 가족 주거 형태) 각각 따로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사람이 볼 때는 한 가족처럼 보이면서 울타리 안의 것은 공동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3세대가 한 울타리에 거주하므로, 고독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지 아니하며, 조부모 - 손자녀 관계가 강화되고, 부엌과 광의 분리는 세대간 및 고부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¹⁷⁾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자식한테 집을 물려 줄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중년기에 이루어 졌을 때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산업화로 야기된 핵가족화 현상하에서의 노인 부양의 문제를 가족 부양 체계로 해소시키는 이상적인 방법으로써 제주도에서는 이미 전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4. 노후 설계



노후 설계의 내용은 대체로 경제적인 면, 신체적인 면, 정서적인 면, 사회 관계망 측면으로 나뉘 볼 수 있다.

1) 경제적인 면

한국 노인은 경제적 자립도가 미약한 원인을 청장년 시절의 자녀에 대한 과잉 투자, 정년 제도의 문제, 사회 보장 제도의 미성숙 등에 두고 있다. 특히 정년 퇴직의 문제점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은 생활상의 기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 및 자아 실현과 관련된 욕구의 충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생물학적 노화와 노동 능력의 저하로 인한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 퇴직 등으로 고용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근로 수입의 격감, 노년기 이전

17)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pp.350~351.

의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개인적인 노후 대책의 미비, 사회 보장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 보편화된 양상이다.¹⁸⁾

경제적 노후 준비는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하며, 노화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 자녀의 도움 없이 의료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여가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재산을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상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노인 단독 가구의 가장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근로 수입이 가장 높고 자녀 원조, 재산 소득 순이다.¹⁹⁾ 노인의 생활비 조달은 연금이 가장 높고, 여가 및 취미 활동 등의 문화 교양비의 지출 내용이 가장 많다.²⁰⁾

손선경·임정빈²¹⁾이 연구한 노후 대책에 대한 경제적 수립면에서 보면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45세 이상부터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40~50대 초반의 시기는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문제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을 위한 노후 대책을 세울 만한 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2) 신체적인 면

노후 생활을 위한 신체적 준비는 육체적·심리적 노화 현상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머리가 희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지는 등 외면상 나타나는 노화에 의한 변화는 노인이 되어 감을 가장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영양 관리, 식생활 개선, 음주·흡연은 삼가고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 전²²⁾은 노후의 건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

18) 전명숙 외(1992), “노인 주거에 관한 노년층의 주요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p.123.

19)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전명숙 외(1992), 전계논문, p.123, 재인용.

20) 이행숙(1997), “주부의 노후생활 준비 의식·행동 및 경제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에 거주하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p.122.

21) 손선경·임정빈(1985),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p.116.

산, 산보, 가벼운 운동 등이 이루어 짐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았다.

3) 정서적인 면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는 정년 퇴직, 배우자와의 사별, 성인 자녀의 독립, 친구의 죽음 등, 주로 역할 상실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런 역할 상실로 인해서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 관계는 축소되어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독은 정신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생활은 원만한 인간 관계 유지와,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격 완성을 향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의 정서적 준비를 성격 적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김현진·이귀옥²³⁾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의 성격 적응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문제로부터 나타나며,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가족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유대 관계, 결혼 상태, 자녀 동거 형태에 따라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서로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가족 내 노인 구성원의 부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변화와 신체적 쇠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성공적 노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 관계망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왔으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간의 상호 작용이 약화됨에 따라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22) 서 전(1991), 전개논문, pp.50~51.

23) 김현진·이귀옥(1992), “노인의 성격 적응 요인과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p.185.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인 원조와 서비스, 정서적 지원, 충고, 칭찬 등을 획득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적 관계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와의 관계로 분류된다.²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성격 변화를 초래하여 활발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은 노인의 사기를 높이는 작용을 하며, 노년기의 형제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의 하나로서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 소외와 고독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이웃과의 접촉 빈도와 접촉 양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고독감이 감소하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이웃은 고독감을 이기게 하는 원천이 된다. 노인들은 퇴직 등으로 인해 활동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친구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갖는다.²⁵⁾ 친구 관계는 노인의 생활 만족과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데, 이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동료 집단간의 관계가 가족이나 자녀와의 불충분한 관계에 대안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김태현²⁶⁾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보다는 친구, 이웃을 더 자주 만나지만 형제와도 잦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과의 접촉 빈도에 의해 이웃이나 친구와의 접촉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단독 가구는 친구가 있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친구와 매일 만난다고 하였다.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본인이나 친구 집으로 관계망이 매우 단조로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주로 대화, 담소 정도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빈도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한 노인일수록 형제간의 방문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정과 같은 복지 시설에 다니는 비율도 높았다.²⁷⁾

노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 준비에는 소외감 없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자의에 의한 취미 활동, 여행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등이 있다.

24) 조명희 외(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 단독 가구의 생활 환경,"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p.178.

25) 상계논문, p.181.

26) 김태현(1994), 전계서, pp.182~187.

27) 조명희 외(1997), 전계논문, p.188.

따라서 이러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중년기 여성의 자의에 의한 노후 준비 과정 및 의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5. 노후대책

1) 노인 부양

1960년대부터 도시화·산업화가 급진전되고 핵가족화의 현상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 인구의 증가 현상은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를 증가시켰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켰으며, 노인 부양은 부양자에 따라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누어지고, 사적 부양 역시 자기 부양과 가족 부양으로 구분된다. 가족 부양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상태에서 부양을 받는 형태, 독립된 노인 세대를 구성하고 자녀들로부터는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 형태, 유료 양로원 등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형태가 있다. 자기 부양의 형태는 젊었을 때 적금, 주식 투자, 보험, 부동산 투자 등으로 사전 비축을 해 둔 경우, 노인이 된 이후에 취업 또는 기타 수입 활동을 통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유형 등이 있다.²⁸⁾

과거 전통 사회에서의 노인 부양은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부양이 약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은 감소하는 반면에, 노인 자신이 부양하는 자기 부양이나 공적 부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부양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사회 부양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사회 부양론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을 제고하게 되었다. 노인의 시중은 가족과 노인 자신에게 그리고 국가 등 공적 기관에 이행되는 경향이냐, 제도나 법률이 정비되고 시설이나 지원 체제를 증가시킨다 해도 국가나 사회는 가족과 같이 노인을 돌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핵가족의 발달과 가족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노인 부양의 중요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²⁹⁾

28) 박재간(1988), 「노인 문제와 대책」, 이우출판사, p.75.

부양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적·정서적·서비스적 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빈곤, 질병, 그리고 고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적 부양은 자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금 또는 사회 보장에 의한 급여나 생활 보장으로써의 공적 부양에 의해 노후 생활을 하는 노인은 거의 없다.³⁰⁾

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고독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으로써, 신체적·정신적인 힘의 쇠퇴로 인해 아동기와 같이 의존적 존재로 변해 가는 시기에 있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적 부양은 노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 식사, 목욕, 세탁 등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부양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의 서비스 부양을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전담하고 있어 동거 자녀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은 신체 쇠퇴로 인하여 자유로운 환경 통제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연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유아나 병자와 같이 전체 사회의 약자의 범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존, 특히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들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움을 주고 받는 유형은 노인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하향하는 도움과, 세대간 상호적으로 흐르는 도움이 있는 데, 이러한 상호 작용은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층의 경우에는 노부모는 성인 자녀로부터 물질적인 원조를 받고 그 대가로 서비스적 도움을 주며, 상층의 경우 부모 세대가 금전적 도움을 주고 성인자녀는 부모를 방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³¹⁾

서병숙³²⁾의 연구에서는 노후 생활에서 생활 만족도는 자녀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보다는 생활 교류도가 원활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내 지위

29) 우미경(1988),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p.45.

30) 박성연·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1), p.72.

31) 김태현(1994), 전개서, p.148.

32) 서병숙(1989), “노후 적응에 관한 연구-생활 만족도와 가족 교류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 pp.146~147.

가 높고 자녀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원활하고 자녀와 객관적인 교류가 빈번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 중 1988년부터 실시된 노인 연금은 국민 연금 중 하나로서 가입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그 급여액은 지급 요건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나,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의 가입자는 현재 절반도 되지 않는다.

김경혜³³⁾의 서울시 노인 복지 서비스의 공급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 서비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소득 보장으로 노령 연금, 노인 복지 수당, 취업 정보 및 상담, 공동 작업장, 취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로는 건강 진단, 재활 서비스, 방문 진료, 호스피스, 치매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생활 서비스에는 가사 보조, 식사 제공, 교통 요금 할인, 생활 의료 상담, 우애 방문 및 결연 사업 등이 있으며 주간 노인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 참여 여가 활동을 보면, 노인 교실을 운영하며, 취미·교양 강좌, 노인 복지 주간, 노인 문화제, 위락 시설 이용 할인, 사회 교육 프로그램, 자원 봉사 활동 지원, 노인정 등이 있다. 주택 서비스로는 양로원, 요양원, 3세대 주택이 있으며 그 외 상속 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노부모 봉양 가정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주택 상속 공제, 소득세 인적 공제, 경로 우대 특별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양적인 면만 중요시하여 질적인 면에서는 소홀함이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규정이 제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상의 문제, 서비스간의 연계성 결여, 민간 참여 부재 등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33) 김경혜(1995), “서울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1), pp.40~47.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주도 중년기 여성의 노후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측정하고자해서, 고교생 이상(만 15세 이상)의 자녀를 둔 중년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도 여성은 생활 투지력과 자립 성향이 강하므로 그에 따른 독특한 노후 설계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35세 이상 60세 이전의 제주도 중년기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는 질문지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각 측정 도구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수정·보완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수입에 관한 문항을 넣었으며, 가족 형태 및 자녀수, 막내 자녀 연령, 배우자 유무, 남편의 출생 순위 등을 포함시켜 가족 구조를 살펴보았다. 문항 구성은 노후 설계 경향에 관해서 25 문항, 노후 대책에 관해서 26 문항,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해서 9문항 등, 총 60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노후에 관한 준비 정도는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준비, 사회 관계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하위 영역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노후 생계 대책과 노후를 위한 저축 금액 등을 알아보았고, 노인이 되었을 때의 부양 관계는 배계희³⁴⁾의 “중년기 노후에 관한 연구”에서의 조사 도구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노후 대책에 대한 준비 내용으로 임종에 대한 준비, 노인 생

34)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pp.58~60.

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고,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20개의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해 우선 순위로 10개를 선정토록 하였다.

3.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중년기에 들어선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자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도 전지역에 걸쳐(제주시-3개 고교, 서귀포시-2개 고교, 동부 지구-2개 고교, 서부 지구-3개 고교) 설문지를 고루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연령 분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학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예비 조사는 1998년 9월 19일~30일 사이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토 분석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998년 10월 7일~10일까지 4일간 조사하였다. 720부를 배부하여 544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 기재된 7부를 제외하고 총 53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 구조와 각 조사 도구의 문항들은 빈도 분석을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년기 준비 정도의 차이 검증은 종속 변수가 비율 척도인 경우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서열척도인 경우는 χ^2 검증을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Wi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 단	N (%)	변수	집 단	N (%)
연령	36~40세	127 (23.6)	종교	기독교	121 (22.9)
	41~43세	159 (29.6)		불교	309 (58.5)
	44~47세	130 (24.2)		기타	14 (2.7)
	48~59세	121 (22.5)		무	84 (15.9)
학력	중졸 이하	314 (58.8)	남편 있음	있음	425 (89.3)
	고졸 이상	220 (41.2)		없음	51 (10.7)
월수입	100만원 미만	175 (34.0)	남편 출생 순위	만아들	181 (34.7)
	100~200만원미만	235 (45.7)		외아들	57 (10.9)
	200만원 이상	104 (20.3)		차남 이하	283 (54.3)
본인 직업	1	53 (10.6)	남편 직업	1	146 (32.2)
	2	120 (23.9)		2	106 (22.6)
	3	192 (38.3)		3	199 (42.5)
	4	137 (27.3)		4	12 (2.6)
가족형태	부부+미혼자녀	429 (81.3)	막내 자녀	7세 이하	34 (6.6)
	부부+기혼자녀	28 (5.2)		8~13세	116 (22.3)
	부모+부부+미혼자녀	60 (11.4)		14~16세	170 (32.7)
	부모+부부+기혼자녀	11 (2.1)		17~19세	198 (38.4)
아들	1명	355 (76.7)	딸	1명	183 (34.7)
	2명	89 (19.2)		2명	186 (35.3)
	3명	11 (2.4)		3명	98 (18.6)
	4명 이상	8 (1.7)		4명 이상	60 (11.4)
계					537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2) 직업 : 1(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서비스직), 3(단순근로직·제조업), 4(본인 : 전업주부, 남편 : 무직)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3세이고, 36~40세가 23.6%, 41~43세가 29.6%, 44~

47세가 24.2%, 48세~49세가 22.5%로써 중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고르게 표본 추출하였다. 종교는 불교가 58.5%인 반면 기독교는 22.9%이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58.8%이고, 고졸 이상은 41.2%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89.3%이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10.7%로 51명이었다. 월 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0만원 미만도 34.0%로 여성들이 가계 수입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 수입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출생 순위는 맏아들인 경우가 34.7%, 외아들인 경우가 10.9%, 차남 이하가 54.3%였다. 직업 분포를 보면 전문직과 사무직보다는 단순 근로직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이외에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편의 직업을 알아 본 결과 부인보다는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 형태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81.3%)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3세대 가족이 11.4%,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사례가 5.3%이다. 조사 대상자의 가족 생활 주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막내 자녀 연령을 질문한 결과, 14~19세가 71.6%여서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중년기 가족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자녀수를 보면 1.72명인데, 아들은 1.30명인 반면 딸은 2.14명으로 딸 자녀수가 많았다. 아들 수가 1명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76.7%)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는 아들 선호 사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들 3명 이상(4.1%) 가족보다 딸 3명 이상(20%)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노후 설계 경향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 관계망 준비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 <그림 2>와 같다.

<표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설계

노후설계 인구학적 변인		빈도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사회 관계망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연령	36~40세	120	3.38		2.77		3.26		3.07	
	41~43세	152	3.30	3.26*	2.78	1.24	3.18	2.04	3.09	.53
	44~47세	125	3.50		2.90		3.29		3.16	
	48~59세	114	3.25		2.87		3.11		3.08	
학력	중졸 이하	299	3.24		-4.62***		2.75		-3.10**	
	고졸 이상	210	3.51	2.94		3.37	3.23			
직업	1	49	3.58	4.80**	3.05	4.53**	3.38	3.36*	3.28	1.54
	2	117	3.49		2.96		3.29		3.13	
	3	183	3.27		2.74		3.12		3.06	
	4	129	3.37		2.79		3.24		3.11	
월수입	100만원 미만	167	3.08	29.50***	2.64	14.15***	3.05	8.54***	2.95	10.48***
	100~200만원미만	222	3.42		2.85		3.27		3.12	
	200만원 이상	101	3.67		3.09		3.33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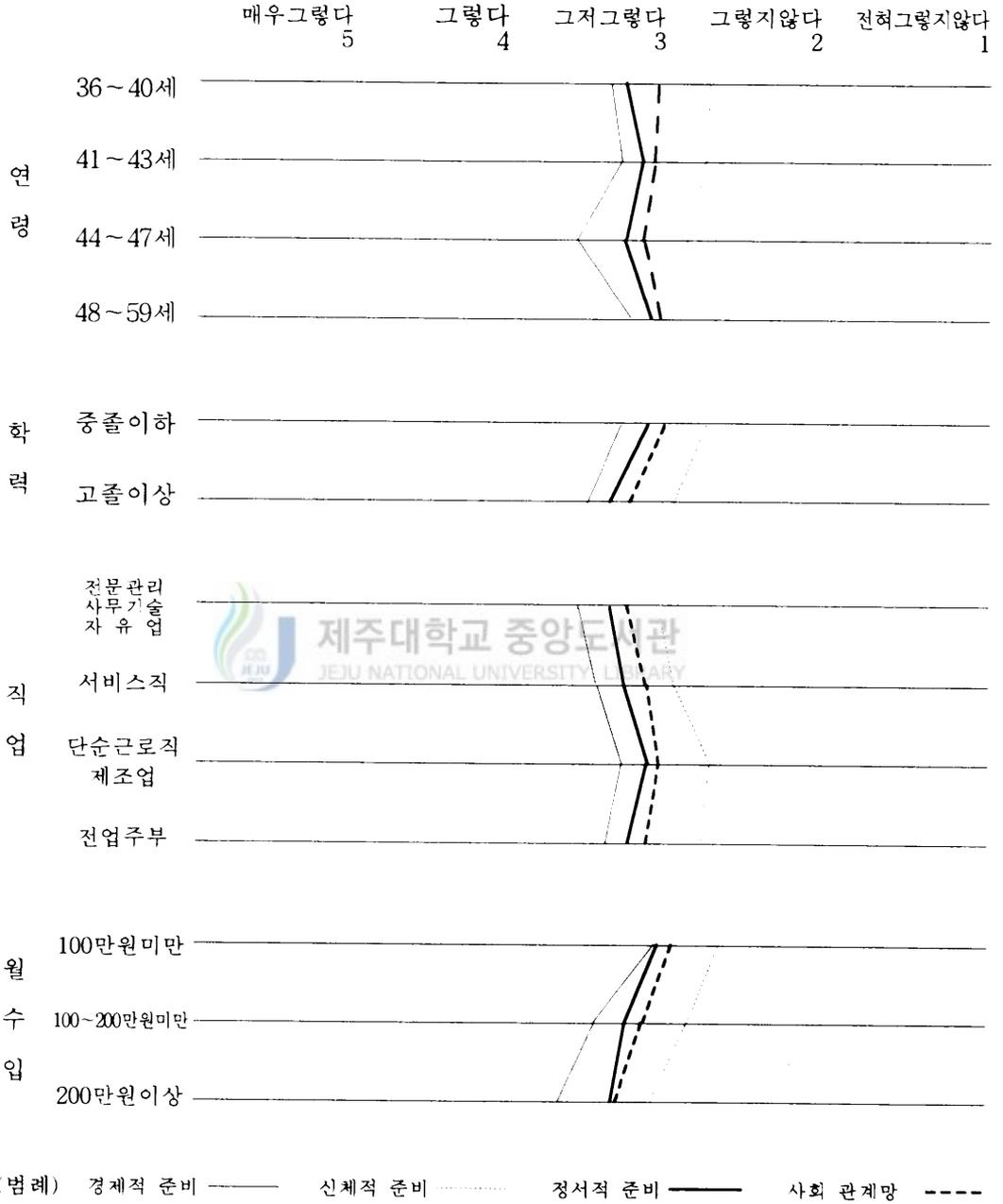
1) 직업 : 1 (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 (서비스직), 3 (단순근로직·제조업), 4 (전업주부)

2) *p<.05 **p<.01 ***p<.001

경제적 준비 정도를 보면 손선경·임정빈(1985)³⁵⁾에서는 서울의 경우 연령과 월수입에 따라, 안동지방의 경우 월수입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변인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학력과 월수입에서는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사회 관계망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노후 설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직업 혹은 수입과 관련된 변인으로써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수입이 높기 때문에 노년기에 대한 경제적 준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준비를 보면, 44~47세 집단은 부모의 노년기를 경험하여 차세대 노인이라는 현실을 받아 들여 노년기에 대한 경제적 준비에 관심을 갖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35) 손선경·임정빈(1985), 전계논문, p.116.



<그림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설계

직업을 기준으로 보면 단순 근로직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집단과 전업주부보다 경제적 준비를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근로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한 투자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전업 주부의 경우는 남편의 수입으로 가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성들이 단순 근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종과 직업 여부에 따라 경제적 준비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는 중년기 가족의 생활 안정을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생활에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년을 위한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준비 정도는 연령을 제외한 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라 신체적 준비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반영되었고,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평균 44세로 노화에 나타나는 변화를 실제로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졸 이하 집단보다 고졸 이상의 집단에서 신체적 준비 정도가 높고, 전문 관리·사무 기술·자유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그리고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신체적 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생활의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준비 정도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학력이 높고, 전문 기술직에 종사할 수록 그리고 수입이 높을수록 정서적 준비 정도가 높다. 신체적 준비보다 높고 경제적 준비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 관계망의 준비는 학력과 수입에서만 차이가 있어 학력이 높고,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 관계망 유지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은 형제자매 관계가 가장 소외감, 외로움을 완화시켜 주는 버팀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³⁶⁾

노후를 위한 정서적 준비와 사회 관계망의 준비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36) 김태현(1994), 전계서, p.181.

차이가 있는 것은 노년기에 대한 인식과 현재 생활의 여유 정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노년기를 위한 비물질적 자원의 투자는 현재 생활이 안정된 후에 고려되는 문제이며, 노년의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부표 1>에서 노후 설계의 경향을 하위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준비를 보면 주택 마련(M3.66), 저축(M3.52), 병원비(M3.46)의 순으로 생활의 터전이 되는 주택은 마련되고, 여가를 위한 것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 노년기에 경제적 무능력에 대비해 생활비를 마련해 두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준비에서는 가사 노동 보조 기구 사용(M3.06)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정서적 준비나 사회 관계망의 준비 정도에 비해 평균점이 3점 이하로 매우 낮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여성은 남성과 못지 않은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제적 자립심이 강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한 생산 노동에 종사한다. 이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기 희생적인 생활 철학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이 우선될 뿐, 자신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서적 준비에서는 취미 생활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이 3.0 이상으로 신체적 준비보다 높고, 경제적 준비와 비슷하다. '마음을 편히 가지고 긍정적 자세를 갖는다'의 평균값이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 관계 유지(M3.51), 외로움을 이겨내는 일(M3.24), 자녀와의 유대(M3.20)를 위한 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생의 주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에 대해 중년기 여성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마음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취미 생활보다는 가족내의 관계에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관계망에서는 친척과의 관계가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M3.77), 다음으로 친구나 이웃(M3.68), 친목회, 동창회(M3.52) 순이었다. 나머지 문항들은 3.0 이하로 근접 환경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준비가 가장 높고, 정서적, 사회 관계망, 신체적 순으로

준비 정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들은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 노년기를 위한 준비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집을 마련하고, 가족 및 사회 관계망과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여 외롭지 않은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서 전³⁷⁾의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노후 준비의 정도는 신체적 준비를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정서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선경³⁸⁾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당면 문제는 신체적 건강 문제, 정신적 고독, 경제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행숙(1991)³⁹⁾의 연구에서 노후 생활 준비 의식이 높을 때 노후 생활 준비 행동을 잘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치관의 변화와 노후 자금 마련의 경제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노후 생활 준비 행동은 노후 생활 준비 의식보다 낮았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제주도 중년기 여성들은 다른 요소보다도 경제적인 자립도를 노후 준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인 면을 우선으로 하면서, 경제면은 의식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육지부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 여성의 자립심 즉 자녀 의존보다 독립 생활을 원하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 부분이 제주도의 특징인 생활 투지력을 잘 드러내고 있다.

3. 노후의 생계 대책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노후 생계 대책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학력,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연령과 직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중졸 이하 집단은 '결정안됨'은 비율(19.5%)이 고졸 이상 집단보다 높았고, 고졸 이상 집단은 저축·연금·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비율이 중졸 이하 집단

37) 서 전(1991), 전계논문, p.56.

38) 손선경(1985), 전계논문, pp.121~124.

39) 이행숙(1997), 전계논문, p.122.

(68.6%)보다 높았다. 수입에 따라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저축·연금·퇴직금으로 생활 하겠다는 비율(90.3%)이 높았고, 수입이 적을수록 '결정 안됨'은 비율(26.1%)이 높았다.

<표 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생계 대책

빈도(백분율)

생계대책		저축연금 퇴직금	자녀의존	국가·사회 복지 제도	결정안됨	계	χ^2
인구학적변인							
연령	36~40세	89 (70.6)	10 (7.9)	7 (5.6)	20 (15.9)	126 (100.0)	$\chi^2=11.452$ df = 12
	41~43세	116 (73.4)	9 (5.7)	2 (1.3)	31 (19.6)	158 (100.0)	
	44~47세	104 (80.6)	7 (5.4)	4 (3.1)	14 (10.9)	129 (100.0)	
	48~59세	86 (71.7)	10 (8.3)	5 (4.2)	19 (15.8)	120 (100.0)	
학력	중졸이하	214 (68.6)	23 (7.4)	14 (4.5)	61 (19.5)	312 (100.0)	$\chi^2=17.714^{**}$ df = 4
	고졸이상	180 (82.2)	12 (5.5)	4 (1.8)	23 (10.5)	219 (100.0)	
직업	1	40 (75.5)	6 (11.3)	3 (5.7)	4 (7.5)	53 (100.0)	$\chi^2=15.384$ df = 12
	2	98 (81.7)	7 (5.8)	1 (0.8)	14 (11.7)	120 (100.0)	
	3	133 (70.4)	15 (7.9)	8 (4.2)	33 (17.5)	189 (100.0)	
	4	103 (75.7)	5 (3.7)	5 (3.7)	22 (16.2)	136 (100.0)	
월수입	100만원미만	108 (62.8)	12 (7.0)	7 (4.1)	45 (26.1)	172 (100.0)	$\chi^2=31.674^{***}$ df = 8
	100~200만원미만	177 (76.0)	17 (7.3)	9 (3.8)	30 (12.9)	233 (100.0)	
	200만원이상	93 (90.3)	4 (3.9)	1 (1.0)	5 (4.8)	103 (100.0)	
계		395 (74.4)	36 (6.8)	18 (3.4)	82 (15.4)	531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2) 직업 : 1 (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 (서비스직), 3 (단순근로직·제조업), 4 (전업주부)

3) **p<.01 ***p<.001

노후의 생계 대책을 보면 저축·연금·퇴직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5.8%이고, 자녀에게 의존(6.8%)하거나, 복지 제도에 의존(3.4%)하려는 의식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영숙(1998)⁴⁰⁾의 연구에서 개인 저축과 연금을 노후의 생활 대책으로 세우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손선경·임정빈 (1985)⁴¹⁾, 전명숙·조현경·강순주(1992)⁴²⁾ 연구에서도 노

40)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 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p.109.

41) 손선경·임정빈(1985), 전계논문, p.116.

42) 전명숙 외(1992), 전계논문, p.135.

후에 기대되는 수입원으로 퇴직금과 저축이라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년기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노후 생활을 보면서 얻는 간접 경험을 통해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준비는 현재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현재의 생활이 불안정한 경우 노후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서 가족 생활 주기의 현 단계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사회 복지 제도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노후를 위한 저축

노후 생활을 위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저축 정도는 <표 4>와 같이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령, 직업, 월수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저축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다면 10만원 미만의 저축 비율이 높은 편이다. 43세 이하 집단의 경우 노년기의 진입시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준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48~59세 집단에서는 저축액이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우리 나라의 자녀에 대한 교육 과열 현상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지출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41~47세에서는 저축액이 20만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이 단순 근로직·제조업, 전업 주부인 경우 월수입이 적은 관계로 저축 금액이 적어지는 반면, 전문 기술직인 경우에 월별 저축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직업의 유형은 수입과 연관되므로 월수입이 높은 직종이 그렇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노년을 위한 노후 대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따라서도 저축액에 차이가 있어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 되는 높은 집단에서는 노후를 위한 저축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저축

빈도(백분율)

월저축액		저축안함	10	10~20	20~30	30	계	χ^2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연령	36~40세	32 (26.2)	35 (28.7)	29 (23.8)	12 (9.8)	14 (11.5)	122 (100.0)	$\chi^2=23.689^*$ df = 12
	41~43세	42 (27.1)	53 (34.2)	37 (23.9)	16 (10.3)	7 (4.5)	155 (100.0)	
	44~47세	25 (19.7)	33 (26.0)	26 (20.5)	26 (20.5)	17 (13.3)	127 (100.0)	
	48~59세	23 (19.7)	45 (38.5)	30 (25.6)	10 (8.5)	9 (7.7)	117 (100.0)	
학력	중졸이하	83 (26.9)	100 (32.4)	69 (22.3)	32 (10.3)	25 (8.1)	309 (100.0)	$\chi^2=7.674$ df = 4
	고졸이상	38 (18.1)	66 (31.4)	52 (24.7)	32 (15.2)	22 (10.5)	210 (100.0)	
직업	1	7 (13.4)	16 (30.8)	12 (23.1)	5 (9.6)	12 (23.1)	52 (100.0)	$\chi^2=32.527^{**}$ df = 12
	2	17 (14.8)	36 (31.3)	27 (23.5)	25 (21.7)	10 (8.7)	115 (100.0)	
	3	49 (26.2)	68 (36.4)	44 (23.5)	14 (7.5)	12 (6.4)	187 (100.0)	
	4	34 (25.4)	38 (28.4)	33 (24.6)	17 (12.7)	12 (8.9)	134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57 (33.5)	63 (37.1)	38 (22.4)	6 (3.5)	6 (3.5)	170 (100.0)	$\chi^2=52.804^{***}$ df = 8
	100~200만원미만	46 (20.3)	72 (37.7)	55 (24.2)	34 (15.0)	20 (8.8)	227 (100.0)	
	200만원 이상	14 (13.4)	24 (23.1)	24 (23.1)	22 (21.2)	20 (19.2)	104 (100.0)	
계		122 (23.4)	166 (31.9)	122 (23.4)	64 (12.3)	47 (9.0)	521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2) 직업 : 1 (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 (서비스직), 3 (단순근로직·제조업), 4 (전업주부)

3) *p<.05 **p<.01 ***p<.001

노후를 위한 경제적 투자는 현재의 생활 안정과 노년기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동기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노후를 위한 준비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에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노년기 준비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5. 노후 부양 형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부양 형태는 <표 5>와 같이 연령, 학력은 p<.05 수준에서, 직업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월수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1~43세 집단의 경우 독립 생활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산업화 이후 세대로서 경제적 개념이 확립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48세 이상의 집단에서 가족 부양이 높은 것은 중년 후기의 집단으로서 자녀 의존 의식이 남아 있고, 시

대적으로 여성의 경제력이 확보되지 못한 세대인 점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가족 부양의 경우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높게 나타났고, 독립 생활은 고졸 이상 학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 부양의 경우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에서 큰 차는 없고, 전체에서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설 부양의 선호도는 매우 낮아 우리나라의 공적 부양에 대한 시설이 미비한 실정을 잘 나타 내고 있다.

<표 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부양 빈도(백분율)

부양형태		가족부양	시설부양	독립생활	계	χ^2
인구학적 변인						
연령	36~40세	55 (44.4)	6 (4.8)	63 (50.8)	124 (100.0)	$\chi^2=22.474^*$ df = 12
	41~43세	50 (32.7)	8 (5.2)	95 (62.1)	153 (100.0)	
	44~47세	47 (39.2)	4 (3.3)	69 (57.5)	120 (100.0)	
	48~59세	62 (53.0)	5 (4.3)	50 (42.7)	117 (100.0)	
학력	중졸이하	144 (47.3)	10 (3.3)	150 (49.4)	303 (100.0)	$\chi^2=13.233^*$ df = 4
	고졸이상	68 (32.7)	13 (6.3)	127 (61.0)	208 (100.0)	
직업	1	16 (31.4)	9 (17.6)	26 (51.0)	51 (100.0)	$\chi^2=43.407^{***}$ df = 12
	2	52 (45.6)	2 (1.8)	60 (52.6)	114 (100.0)	
	3	88 (47.6)	3 (1.6)	94 (50.8)	185 (100.0)	
	4	44 (34.1)	6 (4.7)	79 (61.2)	129 (100.0)	
월수입	100만원미만	84 (50.3)	8 (4.8)	75 (44.9)	167 (100.0)	$\chi^2= 9.712$ df = 8
	100~200만원미만	86 (38.2)	10 (4.5)	129 (57.3)	225 (100.0)	
	200만원이상	34 (34.4)	4 (4.0)	61 (61.6)	99 (100.0)	
계		214 (41.6)	23 (4.5)	277 (53.9)	514 (100.0)	

-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 2) 직업 : 1 (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 (서비스직), 3 (단순근로직·제조업), 4 (전업주부)
- 3) *p<.05 ***p<.001

서비스직과 단순 근로직·제조업에서는 가족 부양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업 주부는 독립 생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비율이지만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집단은 시설 부양을 고려하는 정도가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육지부의 경우 거동이 가능하고 노동력이 있어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거동이 가능한 한 스스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자식들에게 구속을 주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반대로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나 간섭을 받기도 꺼리는 것이다. 가족 부양 비율이 독립 생활 다음으로 높

게 나타난 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경우는 스스로 독립하여 움직일 수 없을 때의 부양 희망 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표 6>의 연구 결과에서 약 50%가 '현재 본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는 결과와, <표 3>에서 저축, 연금, 퇴직금을 노후 생계 대책으로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60~90%를 차지하는 결과와 같다. 제주 여성의 생활상에서 본 것처럼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나라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핵가족 형성으로 시대적 요청이 분가를 요구하게 되는 상태와 같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안착된, 한발 앞서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발표한 신영숙(1998)의 연구에서 보면, 육지부에서도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반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항원(1998)⁴³⁾의 연구에서 분가주의, 고향안주의식, 독립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아도 제주인들의 독립성이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제주도인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타지방 사람들은 노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취사를 따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극진히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지역간 문화의 차이로 생각된다.

6. 임종에 대한 준비

조사 대상자의 임종에 대한 준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임종장소와 장례방식에 있어 생각 해 본 적이 없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년기의 주된 발달 과업이 자녀들의 교육과 사회화에 집중되어 있어 임종에 대한 구체적 준비의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임종 장소는 집에서 맞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집밖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집안에 시신을 들여놓지 못하는 관습이 있어 가능하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려고 노력한다.

43) 김항원(1998), "제주 주민의 정체성", 제주연구총서 2, 제주대학교 출판부, p.191, p.222, p.236.

<표 6> 임종에 대한 준비

문항	집 단	빈도	백분율
임종장소	본인 집	259	48.8
	병원	15	2.8
	자녀 집	31	5.8
	기타	2	.4
	생각해본적 없음	224	42.2
장례방식	화장	109	20.8
	분묘	200	38.2
	생각해본적 없음	215	41.0
죽음에 대한 준비	장례비 일체	76	29.1
	수의	36	13.8
	묘지	93	35.6
	유서(유언)	56	21.5

1) 죽음에 대한 준비는 복수 응답임.

이는 제주 주민들의 풍습으로 사후에도 연속적으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으로 사후에도 편안한 삶으로 이어지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표 2 >에서 보면 임종 장소는 학력을 제외한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50%이상이 본인 집을 선호하고, 다음으로 '생각해 본적 없음'의 경우이고, 연령이 36~40세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자 하는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상례 절차의 간소화와 편리성 그리고 노환으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재 전통적 사고를 지닌 노인층의 의식과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점차 세대간의 의식의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 연령이 낮기 때문에 다른 연령보다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임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간편한 장례의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

장례 방식으로는 분묘⁴⁴⁾를 원하는 사례가 화장보다 높아 묘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44) 제주도의 경우 음력 8월 1일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조상숭배 교육의 일환으로 "벌초(성묘)방학"을 한다. 이것은 선친의 묘지 관리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분묘에 관한 선호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강함을 알 수 있다. <부표 3>에서 보면 장례 방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한 사례와 화장을 하겠다는 사례의 비율이 높은 반면, 48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분묘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전통적 장례 방법인 분묘에 대한 선호도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현재 묘지로 인한 국토의 효율성, 과시적 조경 등 조상 숭배의 차원을 넘어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례 방식 전환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죽음에 대한 준비에서도 묘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례비, 유서, 수의(壽衣) 순위였다. 중년기에 노후 생활은 물론 죽음에 대한 대비까지 해 놓으면 자신의 삶을 인생주기 전체로 비추어 볼 때 남은 여생을 준비된 삶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후를 안락하고 안정감있게 맞이할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보다 자신감 있고 보람된 편안한 마음의 안식을 갖게 되리라 여겨 진다.



7.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참여 여부는 <표 7>, <표 8>과 같다.

노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비율은 89.7%로 나타나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상당히 높아 대체로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인 교육 참여 계획에서도 85.0%가 노인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인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인지와 교육 참여 여부 모두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개인들의 교육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상의 집단은 중졸 이하의 집단보다 노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노인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표 7>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여부

빈도(백분율)

인구학적변인		집단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계	χ^2
연령	36~40세		115 (91.3)	11 (8.7)	126 (100.0)	$\chi^2= 3.654$ df = 3
	41~43세		144 (92.3)	12 (7.7)	156 (100.0)	
	44~47세		109 (85.8)	18 (14.2)	127 (100.0)	
	48~52세		103 (88.8)	13 (11.2)	116 (100.0)	
학력	중졸이하		266 (86.6)	41 (13.4)	307 (100.0)	$\chi^2= 7.371^{**}$ df = 1
	고졸이상		203 (94.0)	13 (6.0)	216 (100.0)	
직업	1		48 (90.6)	5 (9.4)	53 (100.0)	$\chi^2=3.392$ df = 3
	2		110 (94.0)	7 (6.0)	117 (100.0)	
	3		162 (87.6)	23 (12.4)	185 (100.0)	
	4		122 (90.4)	13 (9.6)	135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50 (86.7)	23 (13.3)	173 (100.0)	$\chi^2=10.907$ df = 2
	100~200만원미만		209 (91.3)	20 (8.7)	229 (100.0)	
	200만원 이상		90 (90.0)	10 (10.0)	100 (100.0)	
계			471 (89.7)	54 (10.3)	525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2) 직업 : 1 (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 (서비스직), 3 (단순근로직·제조업), 4 (전업주부)

3) **p<.01

<표 8>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

빈도(백분율)

인구학적변인		집단	참여	불참	계	χ^2
연령	36~40세		109 (88.6)	14 (11.4)	123 (100.0)	$\chi^2=3.486$ df = 3
	41~43세		134 (85.9)	22 (14.1)	156 (100.0)	
	44~47세		106 (84.8)	19 (15.2)	125 (100.0)	
	48~52세		93 (80.2)	23 (19.8)	116 (100.0)	
학력	중졸이하		253 (82.1)	55 (17.9)	308 (100.0)	$\chi^2= 6.157^*$ df = 1
	고졸이상		189 (90.0)	21 (10.0)	210 (100.0)	
직업	1		49 (92.5)	4 (7.5)	53 (100.0)	$\chi^2=3.566$ df = 3
	2		99 (86.8)	15 (13.2)	114 (100.0)	
	3		158 (84.5)	29 (15.5)	187 (100.0)	
	4		110 (82.1)	24 (17.9)	134 (10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39 (80.8)	33 (19.2)	172 (100.0)	$\chi^2=3.917$ df = 2
	100~200만원미만		194 (87.0)	29 (13.0)	223 (100.0)	
	200만원 이상		90 (88.2)	12 (11.8)	102 (100.0)	
계			442 (85.0)	78 (15.0)	520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2) 직업 : 1 (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 (서비스직), 3 (단순근로직·제조업), 4 (전업주부)

3) *p<.05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지속적인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교육 자체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이 약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다.

그러나 평생 교육은 개인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예방적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이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 유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모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노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 요구도

문항	필요없다	모르겠다	필요하다	평균	계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1(5.9)	148(28.2)	345(65.8)	2.60	524(100.0)
건강 교육 프로그램	6(1.1)	39(7.4)	484(91.5)	2.90	529(100.0)
자녀와의 관계 프로그램	14(2.7)	100(19.0)	411(78.3)	2.76	525(100.0)
여가·취미 활동 프로그램	21(4.0)	122(23.2)	383(72.8)	2.69	526(100.0)
사회변화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31(5.9)	142(27.1)	351(67.0)	2.61	524(100.0)
생애 정리와 임종 준비 프로그램	70(13.4)	218(41.8)	233(44.7)	2.31	521(100.0)

평균값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건강 교육이고, 다음으로 자녀와의 관계, 여가·취미 활동 순위이며, 생애 정리와 임종 준비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았다. 이것은 노년기가 되면 육체적 쇠락으로 인해 건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권위의 상실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 교육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

부표 4>를 통해서 보면 경제 생활과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와의 프로그램은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요구도가 높다.

여가와 취미 활동 프로그램은 학력과 월수입에 따른 차이가 있어,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은 집단일수록 요구도가 높다. 여가와 취미는 노년기 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만 생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계층에 따라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층이 낮은 경우에는 생활에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계층이 높아질수록 여가와 취미와 같은 문화적인 측면에 관심이 높아진다.

사회 변화에 대한 교육은 월수입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으며,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 수입이 낮은 집단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현재 생활에 관심을 집중하는 반면, 수입이 높은 집단은 사회 변화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집단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생애 정리·임종 준비 프로그램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고졸 이상의 집단이 중졸 이하의 집단보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은 경제적 안정이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월수입의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8.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요구도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복지 사업은 무료 건강 진단 제도였고, 다음으로 의료 보호, 노인 전문 병원, 무료 양로·요양 시설이었다.

이것은 신영숙(1998)⁴⁵⁾의 연구에서 의료 시설의 완비를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

45) 신영숙(1998), 전계논문, p.107.

난 결과와 같다. 따라서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0> 노인 복지 사업 요구도

문항	순위	빈도	문항	순위	빈도
무료 건강 진단 제도	1	488	법적 세제 공제 혜택	11	259
의료보호	2	450	노인정	12	250
노인 전문 병원	3	426	노인 공동 작업장	13	219
무료 양로·요양시설	4	401	가정 봉사원 제도 / 재가 복지 봉사 센터	14	184
생활 보호	5	368	경로 식당	15	179
경로 우대 제도	6	353	노인 능력 은행	16	117
노인 종합 복지관	7	352	실버 양로·요양시설	17	76
노인 대학 및 노인 학교	8	335	주간 보호 시설	18	74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	9	294	유료 양로·요양시설	19	53
노령 수당 제도	10	264	단기 보호 시설	20	48

노인들은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환자들처럼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닌 노쇠 현상으로 오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의료 행위로써 경제적인 면이 동반되므로 수입이 없는 노년기 세대의 요구 사항이 무료 건강 진단과 치료, 전문 병원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생활 보호, 경로 우대 제도, 노인 종합 복지관, 노인 대학 및 노인 학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즉, 건강한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생활 영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노인 종합 복지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여가 시간을 위한 장소 및 교육 프로그램 장소, 컴퓨터도 이용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노인 종합 복지관의 운영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나머지 노인 복지 사업은 보다 구조화될 수 있다.

다른 복지 사업에 비해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간 보호 시설과, 단기 보호 시설, 유료 양로·요양 시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의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노인들의 문화 생활에 관한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가까운 미래에 노년기를 맞게 될 현재의 중년기 여성들은, 전통 사회 의식의 종적 관념을 가지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해 노령 연금 체제나 공적 부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노후 설계를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어 노년기를 위한 자립적인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전부터 분가를 실행해온 제주도 여성은 육지부 중년기 여성과는 다른 특유의 자립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의 노후 대책 현황과 노후 설계 경향을 파악하여 차세대 노인들의 보다 향상된 노년기를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여성의 노후 설계 경향을 인구 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 관계망 준비 정도를 분석하였다.

1) 경제적 준비는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월수입이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일수록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기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과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는 학력, 직업,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집단일수록 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준비는 가족 관계 내에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연령이 44세로 폐경을 경험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한 투자로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은 경향이 있어 신체적 준비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사회 관계망은 학력과 월수입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고 월수입이 많은 집단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둘째, 중년기 여성의 노후 대책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노후 생계 대책은 학력,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저축·연금·퇴직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독립적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노후를 위한 저축 정도는 연령, 직업,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많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저축액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직, 사무기술직 집단에서 저축액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노후 부양 형태는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독립 생활 비율이 높아, 제주도 여성의 자립심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부양은 독립 생활을 유지하다가 거동이 불가능해야 비로소 자녀의 부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육지부에서는 활동이 가능하고 노동력이 있어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점차 근래에 올수록 자녀와 별거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 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확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임종에 대한 준비를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임종 장소는 연령, 직업, 월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집에서 맞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자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장례 방식은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분묘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화장이지만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분묘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준비에서도 묘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례비, 유서, 수의(壽衣)의 순위였다.

셋째,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식은 학력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개인들의 교육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5% 이상이 노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뒷전으로 미룬 신체적 준비 과정인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요구도가 높았다. 다음이 자녀와의 관계이다.

넷째,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요구는 무료 건강 진단 제도가 가장 높다. 노인들은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보았듯이 의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간 보호 시설과, 단기 보호 시설, 유료 양로·요양 시설이었다. 즉, 건강 서비스, 사회서비스, 주택서비스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어 서둘러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도 중년기 여성의 다양한 노후 준비 문제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독특한 의식 구조인 경제력, 자립심, 자녀와의 정서 생활 유지, 중년기 여성의 노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요구 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중년기의 노후 준비 정도는 경제적 준비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 준비는 낮았다. 다른 요소보다 경제적인 자립도를 노후 준비의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양에 있어서도 자녀 의존보다 독립 생활을 원하는 경제 준비를 하고 있고 거동이 가능한 한 스스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자식들에게 구속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반대로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나 간섭을 받기도 꺼리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중년기 여성들이 자립심이 강한 것은 제주도의 문화와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중년기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인들 대부분은 경제적·정신적·독립성과 자립심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래 사회는 가족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본인들의 준비는 노년기에 늦으므로 중년기부터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현재 평생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 범위의 확대 또는 중년기에서부터 노년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특성에 맞는 중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생 교육은 개인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예방적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중년기부터 제공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이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는 물론 생의 최후 순간까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을 위한 의료 시설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규모의 축소화로 선진국에서는 과반수 이상(60%)의 노인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치는 경향을 볼 때, 도시의 의료 시설 집중화를 지양하고,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수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사회로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서울 : 교문사.
- 김항원(1998), 「제주 주민의 정체성」, 제주연구총서 2,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태현(1995), 「노년학」, 서울 : 교문사.
- 박재간(1988). 「노인 문제와 대책」, 서울 : 이우 출판사
- 서병숙(1993), 「노인연구」, 서울 : 교문사.
- 오성찬 외 3인(1987), 「아름다운 제주정신」, 제주도.
- 윤진(1993),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다신·마치자와시즈오 편, 이연수 옮김(1985), 「중년기의 위기관리」, 서울 : 두남 문화사.
- Jim Conway, 한성열 역(1996), 「흔들리는 중년기 - 원인과 극복」, 서울 : 학지사.

<논문>

- 권녕완(1989), “한국 주부 사회교육 참여 저해 요인” 특집/ 「제2회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논문 현상 공모」 당선작, 女性研究.
- 김경혜(1995), “서울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1).
- 김명자·박성연(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 김숙희(1994), “한국의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발전 연구논문.
-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 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서울시 중년기 가계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18, 서울 생활과학연구소.
- 김종서 외 3인(1982), “평생 교육의 체재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가족 부양의 실제와 부양 만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 김현진·이귀옥(1992), “노인의 성격적응 요인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 김혜숙(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 구조”, 「제주사회론2」, 서울: 아카데미.
- 박경숙(1990),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 박성연·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1).
-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 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 배계희(1988), “중년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 서병숙(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와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
- 서 전(1991),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 손선경·임정빈(1985),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 신하연·여정성(1997), “중년기 소비자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연구, 22호,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연구소.
- 안승록(1986), “중년기 위기와 개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 왕석순·서병숙(1995), “중년기 적응에 대한 문헌 고찰”, 한국노년학, 15(1).
- 우미경(1988),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 윤성혜(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 이기숙(1996), “중년기 여성의 사회 활동에 관한 일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 이행숙(1997), “주부의 노후생활 준비 의식·행동 및 경제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 전명숙·조현경·강순주(1992), “노인주거에 관한 노년층의 주요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 조명희 외 3인(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 환경”,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 진미정·옥선화(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 최근하(1993),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재산 형성과 관리”, 한국노년학 13(2).
- 최신덕(1982), “노인부양과 규범의 정립”, 핵가족화와 노인복지 세미나 보고서.
-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the Plan for Old Age Life of Middle Aged Women in Chejudo

Hong Sook-Ja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e-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ways of planning old age life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better and to develop old age life of middle aged women who are supposed to spend their old ag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present old aged.

This study was done through questionnaires from Sept. 28, 1998 till Oct. 7, 1998.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537 mothers having their children in high schools on Chejudo. The forms of questionnaires were made by revising and adding some questions of preceding studies. The object's general properties, their family structure and each item of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rough the frequency using by Spass Win 8.0.

The differences in planning old age life were testified by t-test and One-way ANOVA in case the variables were ratio scales, and by Chi-square test(χ^2) in case the variables were ordinal sca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financial plan for old age was more made in the group of higher age, educational achievement, monthly income, and professionalism in job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9.

The physical plan and the emotional plan were more made in the group of higher educational achievement, monthly income and professionalism in jobs. The plan for social relationship was more made in the group of higher educational achievement and monthly income. If thes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each pattern, the financial plan for old age was the first to prepare, and then emotional plan, social relationship and physical plan followed in this order. This is a contrast to the results of the studies in other areas saying that physical plan is the first to prepare.

2. The objects in the group of higher educational achievement and monthly income depended greatly on savings, pension and retirement allowance for a living in old age. The amount of savings was larger in the group of higher age, monthly income, and professionalism in jobs. The types of support during the old age were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age, educational achievement and jobs. But, as a whole, the large proportion of the objects pursued independent life and therefore female Chejuians' characteristics of self-support could be seen.

3. In preparing last, the proportion of the objects who hoped comfortable last in their own homes was highest. But some of the objects chose hospitals for their last. The proportion of the group of higher age preferring burial service was very high.

4. In recognizing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old age, there were differences depending on educational achievement. The group of higher educational achievement had more interest in the educational programs.

5. Concerning the welfare for old age, the objects demanded most medical examination free of charge and then medical care, special hospitals and homes free of charge for the old ag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 would like to suggest followings for the planning of old age.

1. The proper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middle aged in our own country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 middle aged can systematically prepare for their old age from their middle age.

2. A policy should be introduced to build medical facilities for the old aged considering the local traits of Chejudo.

부 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1>

<부표 1> 노년기를 위한 노후 설계

빈도(백분율)

문 항		전혀그렇 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그 저 그렇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평균
경 제 적 준 비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34 (6.4)	43 (8.1)	146 (27.5)	231 (43.5)	77 (14.5)	3.52
	노후 안정을 위해 직업을 갖고 있다	28 (5.3)	95 (18.0)	155 (29.4)	197 (37.4)	52 (9.9)	3.28
	노후 안정에 대비하여 지출을 계획적으 로 하는 생활을 한다	22 (4.2)	77 (14.7)	197 (37.6)	184 (35.1)	44 (8.4)	3.29
	아플 때 언제라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의 료비를 준비한다	19 (3.6)	69 (13.1)	174 (33.0)	183 (34.7)	82 (15.6)	3.46
	노후에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준비를 한다	55 (10.4)	143 (27.1)	170 (32.2)	124 (23.5)	36 (6.8)	2.89
	노후에 살게 될 집이 마련되어 있다	35 (6.6)	74 (13.9)	72 (13.6)	207 (39.0)	143 (26.9)	3.66
신 체 적 준 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보약이나 건강식 품을 먹는다	96 (18.2)	157 (29.7)	168 (31.8)	83 (15.7)	24 (4.5)	2.59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지방과 당분의 섭취 를 조절한다.	62 (11.8)	136 (25.8)	214 (40.6)	82 (15.6)	33 (6.3)	2.79
	가사 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척기 등의 편리한 기구를 이용한다	50 (9.5)	115 (21.8)	163 (30.9)	154 (29.2)	46 (8.7)	3.06
	정기 검진은 물론 필요할 때마다 건강 진단을 받는다	56 (10.6)	142 (26.8)	171 (32.3)	114 (21.5)	47 (8.9)	2.91
	노후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으로 몸 을 단련한다	68 (12.9)	164 (31.0)	194 (36.7)	73 (13.8)	30 (5.7)	2.68
	규칙적인 생활로 몸을 무리하지 않는다	37 (7.0)	138 (26.0)	216 (40.8)	103 (19.4)	36 (6.8)	2.93
정 서 적 준 비	세대차를 줄이기 위해 손자녀나 젊은이 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34 (6.5)	72 (13.7)	220 (41.8)	153 (29.1)	47 (8.9)	3.20
	가족과 공동 생활에 참여하고 많은 대화 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19 (3.6)	50 (9.5)	175 (33.4)	204 (38.9)	76 (14.5)	3.51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 그때 해 소한다	33 (6.2)	121 (22.9)	207 (39.1)	113 (21.4)	55 (10.4)	3.07
	마음을 편안하게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 를 갖도록 노력한다	4 (.8)	37 (7.0)	209 (39.4)	207 (39.1)	73 (13.8)	3.58
	혼자가 되어서도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 을 기르려고 애쓴다	25 (4.7)	65 (12.3)	234 (44.2)	169 (31.9)	36 (6.8)	3.24
	노후의 취미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66 (12.5)	152 (28.8)	196 (37.2)	93 (17.6)	20 (3.8)	2.71
사 회 관 계 망	나는 친척들과 좋은 관계망을 맺고 있다	5 (.9)	22 (4.2)	161 (30.5)	244 (46.2)	96 (18.2)	3.77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많다	6 (1.1)	23 (4.3)	185 (34.9)	235 (44.3)	81 (15.3)	3.68
	친목회나 동창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30 (5.7)	69 (13.0)	119 (22.5)	222 (41.9)	90 (17.0)	3.52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사 람을 사귄다	71 (13.4)	176 (33.3)	199 (37.6)	63 (11.9)	20 (3.8)	2.59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74 (13.9)	193 (36.2)	173 (32.5)	77 (14.4)	16 (3.0)	2.56
	지방 자치 단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89 (16.8)	185 (34.9)	183 (34.5)	59 (11.1)	14 (2.6)	2.48

<부표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임종 장소

빈도(백분율)

인구학적변인		임종장소	본인집	병원	자녀집	기타	생각해본적없음	계	χ^2
연령	36~40세		51 (40.1)	2 (1.6)	11 (8.7)	1 (0.8)	62 (48.8)	127 (100.0)	$\chi^2 = 27.11^{**}$ df = 12
	41~43세		71 (45.2)	5 (3.2)	3 (1.9)		78 (49.7)	157 (100.0)	
	44~47세		62 (48.8)	6 (4.7)	9 (7.1)	1 (0.8)	49 (38.6)	127 (100.0)	
	48~59세		75 (62.5)	2 (1.7)	8 (6.7)		35 (29.2)	120 (100.0)	
학력	중졸이하		162 (51.8)	7 (2.2)	14 (4.5)		130 (41.5)	313 (100.0)	$\chi^2 = 7.104$ df = 4
	고졸이상		97 (44.9)	8 (3.7)	16 (7.4)	2 (0.9)	93 (43.1)	216 (100.0)	
직업	1		26 (49.1)	3 (5.7)	5 (9.4)		19 (35.8)	53 (100.0)	$\chi^2 = 24.125^{**}$ df = 12
	2		49 (40.8)	3 (2.5)	8 (6.7)	1 (0.8)	59 (49.2)	120 (100.0)	
	3		114 (60.3)	5 (2.7)	8 (4.2)		62 (32.8)	189 (100.0)	
	4		55 (41.0)	3 (2.2)	5 (3.7)	1 (0.8)	70 (52.3)	134 (100.0)	
월수입	100만원미만		84 (48.0)	1 (0.6)	12 (6.8)	2 (0.9)	78 (44.6)	175 (100.0)	$\chi^2 = 17.206^{**}$ df = 8
	100~200만원미만		108 (46.8)	6 (2.6)	10 (4.3)		105 (45.5)	231 (100.0)	
	200만원이상		48 (47.1)	8 (7.8)	8 (7.9)		38 (37.3)	102 (100.0)	
계			259 (48.8)	15 (2.8)	31 (5.8)	2 (0.4)	224(42.2)	531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2) 직업 : 1 (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 (서비스직), 3 (단순근로직·제조업), 4(전업주부)

3) *p<.05 **p<.01

<부표 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례 방식

빈도(백분율)

인구학적변인		장례방식	화장	분묘	생각해본적없음	계	χ^2
연령	36~40세		22 (17.7)	44 (35.5)	58 (46.8)	124 (100.0)	$\chi^2 = 17.217^{**}$ df = 6
	41~43세		40 (25.6)	49 (31.4)	67 (43.0)	156 (100.0)	
	44~47세		30 (24.2)	44 (35.5)	50 (40.3)	124 (100.0)	
	48~59세		17 (14.2)	63 (52.5)	40 (33.3)	120 (100.0)	
학력	중졸이하		57 (18.3)	128 (41.0)	127 (40.7)	312 (100.0)	$\chi^2 = 4.024$ df = 2
	고졸이상		52 (24.8)	72 (34.3)	86 (41.0)	210 (100.0)	
직업	1		15 (28.3)	20 (37.7)	18 (34.0)	53 (100.0)	$\chi^2 = 5.228$ df = 6
	2		23 (20.2)	39 (34.2)	52 (45.6)	114 (100.0)	
	3		36 (18.8)	83 (43.5)	72 (37.7)	191 (100.0)	
	4		27 (20.5)	50 (37.9)	55 (41.7)	132 (100.0)	
월수입	100 만원 미만		27 (15.4)	68 (38.9)	80 (45.7)	175 (100.0)	$\chi^2 = 7.125$ df = 4
	100~200만원 미만		54 (23.9)	79 (35.0)	93 (41.1)	226 (100.0)	
	200 만원 이상		20 (20.0)	45 (45.0)	35 (35.0)	100 (100.0)	
계			109 (20.8)	200 (38.2)	215 (41.0)	524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2) 직업 : 1(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서비스직), 3(단순근로직·제조업), 4(전업주부)

3) **p<.01

<부표 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프로그램 인구학적변인			경제생활 안		건강교육		자녀관계		여가 취미활동		사회 변화 새로운정보		생애정리 임종준비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연령	36~40세	127	2.65	.38	2.90	.38	2.76	.44	2.71	2.17	2.71	1.70	2.32	1.14
	41~43세	156	2.58		2.91		2.79		2.76		2.60		2.39	
	44~47세	126	2.57		2.93		2.72		2.65		2.60		2.27	
	48~59세	115	2.60		2.89		2.52		2.60		2.54		2.25	
학력	중졸이하	302	2.60	-1.0	2.91	-1.0	2.75	-2.24	2.65	-2.24	2.57	-1.84	2.25	-2.39
	고졸이상	220	2.60		2.91		2.76		2.75		2.67		2.40	
직업	1	53	2.70	2.46	2.85	.98	2.67	2.72*	2.77	1.93	2.51	2.04	2.36	.12
	2	118	2.69		2.94		2.84		2.75		2.69		2.33	
	3	185	2.53		2.90		2.70		2.62		2.55		2.30	
	4	134	2.57		2.00		2.79		2.69		2.65		2.31	
월수입	100만원미만	172	2.61	.37	2.89	.44	2.77	1.46	2.57	6.99**	2.49	5.40**	2.27	.59
	100~200만원미만	228	2.51		2.91		2.72		2.75		2.66		2.31	
	200만원이상	101	2.55		2.92		2.82		2.77		2.70		2.37	

1) 1 (전문관리·사무기술·자유업), 2 (서비스직), 3 (단순근로직·제조업), 4 (전업주부)

2) *p<.05 **p<.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설문지

안녕 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중년기 여성인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노후 생활의 방향을 연구하고자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정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 됩니다.

개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이외에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름을 기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기록해 주시는 답 하나 하나는 매우 중요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뜨림 없이 솔직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 9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I. 해당하는 사항에 답 또는,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2. 귀하의 학력은?

학 력	본 인	남 편
1. 중학교 졸 이하		
2. 고등학교 졸		
3. 대학교 졸		
4. 대학원 졸 이상		

3.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없음

4. 귀하의 현재 직업은?

직 업 종 류	본 인	남 편
1.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대기업주, 2급 이상 공무원 등)		
2.관리직 (대기업 과장급 이상 회사원, 공무원, 교사)		
3.사무직 (기자, 경찰, 계장 이하 회사원, 은행원)		
4.기술직 (숙련 기능공, 운전 기사, 목수)		
5.서비스업 (상인, 중계인, 소규모 영업자, 상점경영, 운수업)		
6.단순 근로직 (수위, 청소부, 이발사, 웨이터)		
7.제조업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공업, 광업 등)		
8.자유업 (언론, 출판업, 기타)		
9.무직		
10기타(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5. 귀댁의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6. 귀하의 가족 형태는?
 ① 부부+미혼자녀 ② 부부+기혼자녀 ③ 부모+부부+미혼자녀
 ④ 부모+부부+기혼자녀 ⑤ 부부
7. 귀하의 자녀는 ?
 아들 ()명 딸 ()명 막내 자녀 나이 ()세
8. 현재 남편이 ① 있다. ② 없다.
9. 남편의 출생 순위는?
 ① 맏아들 ② 외아들 ③ 차남 이하

II. 다음은 노후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사항에 V 표 해 주십시오.

경 제 적 준 비	매 우 그렇다	그 럽 다	그 지 그렇다	그 럽 지 않 다	전 혀 그 럽 지 않 다
1.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보험, 저축, 부동산 등)					
2. 노후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을 갖는다.					
3. 노후의 안정을 대비하여 지출을 계획적으로 하는 습관을 기른다.					
4. 아플 때는 언제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의료비 준비를 한다.					
5. 노후에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도록 준비한다.					
6. 노후에 살게 될 집은 마련되어 있다.					
신 체 적 준 비					
7.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 식품을 먹는다					
8. 성인병 예방을 위해 지방이나 당분의 섭취를 조절한다.					
9.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척기 등 편리한 기구를 이용한다.					
10. 정기 검진은 물론, 필요할 때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					
11. 노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12. 규칙적인 생활로 몸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정 서 적 준 비					
13. 세대차를 줄이기 위해 손자녀나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14. 남편과 공동활동에 참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15. 스트레스는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소한다.					
16.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17. 혼자가 되어서도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려고 애쓴다.					
18. 노후의 취미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 회 관 계 망					
19. 나는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20.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들이 많다.					
21. 친목회나 동창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22.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을 사귄다.					
23.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4. 지방 자치 단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25. 이외에도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써 주십시오.

